**전력거래소 이사회의 이해충돌상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발언문**

우리는 오늘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존재하는 이해충돌상황을 알리고 그 해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수천 개의 시장참여자가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을 운영하는 기관이자 시장참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발전사업자가 얼마의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얼마의 대금을 지급받을 것인지 결정하며, 생산된 전력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고 감시합니다. 전력거래소는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모든 전력관련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라고 스스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처럼 중립적 역할을 견지해야 할 전력거래소는,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특정 기업 임원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임원들로,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시장참여자들 중 일부입니다. 이는 경기에 참여하는 특정 선수가 동시에 심판으로 활동하는 상황,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의 해당 이사들은 본인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업이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신고하거나 직무수행의 회피를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전력거래소는 공직자인 이사들이 사적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단 한차례도 이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법사항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현재는 수많은 분산형 발전원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1년 전력거래소가 설립되던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23년이 경과한 지금 6,000여 개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발전원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존재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함으로써, 공직자인 전력거래소 이사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력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엄정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전력거래소는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라! (해소하라 x 3)

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시장과 계통 운영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x 3)